

## KIND,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투자계약 체결 - EPC 수주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1억3천만불 공동 투자

□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이하 'KIND', 사장 허경구)는 5월31일(폴란드 현지시각) 현대엔지니어링,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그룹인 Grupa Azoty, 폴란드 대형정유기업인 Grupa Lotos와 폴란드 폴리머리 폴리체 PDH/PP\* 플랜트 및 터미널 인프라 건설·운영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투자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\* PDH : Propane Dehydrogenation의 약자. 프로판가스에서 수소를 제거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 / PP : Polypropylene(폴리프로필렌)의 약자. 프로필렌에 촉매를 주입하여 중합반응(Polymerization)을 통해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

□ 본 사업은 수도 바르샤바 북서쪽 500km에 위치한 폴리체 지역에 연생산량 40만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생산공장과 항만 등 부대 인프라를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폴란드 역대 최대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이며, 준공 후에는 생산된 폴리프로필렌을 폴란드 및 유럽 각 지역에 판매하게 된다.

□ 총사업비는 18억불 규모이며, 현대엔지니어링이 EPC(설계·조달·시공) 계약자로서 지난 2019년 5월 약 12억불 규모의 EPC 계약을 발주처인 Grupa Azoty로부터 수주하여 금년초 정식착공에 들어갔다.

□ KIND는 현대엔지니어링의 EPC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지원 의사를 표명, 지난 2019년 5월 현대엔지니어링의 EPC 수주 시 Grupa Azoty와 투자협력계약(ICA)을 체결하였으며,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실사 및 주요 투자조건 협상 등을 통해 9월 투자확약서(LOC)를 체결, 이후 세부 투자조건 협상을 거쳐 금번 정식계약 체결까지 이르렀다.

□ KIND와 현대엔지니어링은 Grupa Azoty, Grupa Lotos와 공동으로 총 7억2천만불을 지분 및 주주대여금 형태로 본 사업에 투자하게 되며, 그 중 KIND와 현대엔지

니어링의 합산 투자규모는 약 18% 상당인 1억3천만불이다.

- 총사업비 18억불 중 7억2천만불을 제외한 10억8천만불은 EBRD(유럽부흥개발은행), Bank Pekao, BNP Paribas, Santander 등 다자개발은행, 글로벌금융기관 및 폴란드 금융기관 총 13곳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기법을 통한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한 금융약정도 같은 날 체결되었다.
  
- KIND와 현대엔지니어링은 EPC 수주 및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 및 건설 단계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운영 단계에까지 참여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얻게 된다.
  
- 허경구 KIND 사장은 “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협상이 불가능하여 계약 최종합의 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나, 이메일과 컨퍼런스콜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적극적인 온라인 협상을 통해 적기에 계약 체결에 이를 수 있었다”고 체결과정을 밝히며, “KIND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이며 우리 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양국 간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 앞으로도 투자실행과 운영단계까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고 말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플랜트사업실 이영목(☎ 02-6746-73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